

강진군, 축산농가 소득 안정위한 조사료 경영체 관계자 회의

제조 운송비 최대 18톤까지 지원·부족 사업량 해결책 논의 맥류 부산물 자원화 신규사업 설명도... “경영체 적극 협조”

강진군은 지난 22일 강진완도축협 회의실에서 '2022년 조사료 경영체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군과 조사료 경영체 그리고 강진완도축협의 소통을 통하여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의 변경된 지침을 설명하고 증감된 사업량 및 맥류 부산물 자원화 신규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군은 올해 조사료 제조 운송비를 최대 18톤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지난해 대비 부족한 사업량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또, 제2회 추경에 편성한 귀릿짚·보릿짚 지원화 사업을 한우 사육 농가 등에서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가를 최종 결정했다. 맥류 부산물을 자원화사업을 시행하면 주민 생활민원 해소는 물론, 한우 사육 농가에서 부

산물 조사료나 깔짚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축산 경영비 절감, 교통사고 및 산불 예방 및 탄소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진군의 2021년 기준 조사료 재배면적은 총 3,458여ha이며, 이중 동계 조사료는 3,189ha, 하계 조사료는 296ha에서 재배하고 있다. 황인준 환경축산과 과장은 “올해도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축협과 조사료 경영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사료 사업을 비롯한 조사료 부속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고금면에 파크골프장 조성 완료

1코스 9홀로 조성...향후 20억 투입해 9홀 추가 증설



완도군에서는 고금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3월 22일 준공식을 가졌다.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일원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은 최근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를 더 많은 군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

여 11,848㎡ 부지에 1코스 9홀로 조성했다. 특히 대부분 코스를 평지 위주로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2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 9홀을 추가로 증설하여 다양한 난이도를 적용해 총 18홀의 코스를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편의시설을 더해 관련 대회를 유치하는 등 전국에서 즐겨 찾는 파크골프장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파크골프가 활성화되어 군민 건강 증진은 물론 건강한 생활로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라며 “군에서는 군민 모두가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체육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크골프란 일반 골프와 비슷한 경기 진행 방식을 따르지만 보다 단순하고 전 구간을 하나의 채로 진행하여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쉽게 입문할 수 있어 남녀노소 쉽게 즐기는 생활 스포츠이다.

완도=이민혁기자

진도군, 대한노인회 ‘노인복지 대상’ 수상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 복지 질적 향상 노력 인정

진도군이 최근 (사)대한노인회가 주최한 2022년 제1회 전국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인복지대상은 경로효친의 정신으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송고한 경로효친 정신으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한 진도군을 포함한 27개 자치단체가 대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진도군은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인 일자리 ▲노인 사회 활동지원 ▲경로당 활성화 ▲노인회 지원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복지의 계층별 맞춤형을 위해 노인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의 다양한 노인 여가·문화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시상 첫해에 대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하고 질 높은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도=조성용기자

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고급육 브랜드 출시

전남 최대 한우사육규모...1+등급 이상 Major(최우수)·1등급 이상 Prime(우수) 등급 판매

장흥군이 고급육 브랜드 ‘정남진 장흥한우’를 출시했다. ‘정남진 장흥한우’는 장흥군과 장흥축협, 한우사육농가와 토요시장 식육판매업소가 힘을 모아 야심차게 준비한 한우고기 고급육 브랜드다. 군은 장흥한우가 고급화, 브랜드화로 전국 최고의 명품한우로 자리매김하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번 브랜드를 런칭했다. 장흥군은 58,000여두의 한우를 키우고 있어 전남 최대의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육질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 또한 54.2%로 매우 높아 명품 한우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는 한우 거세우 1+등급 이상의 Major(최우수)등급과 한우 거세우와 암소 1등급이상의 Prime(우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장흥축협판매점과 토요시장 브랜드전문 식육판매점을 통해 판매하게 된다. 브랜드 한우는 고품질 단백질과 유용미생물이 첨가된 전용사료를 18개월 이상 급여하고, 전용 사양프로그램 준수 등 품질



인증 기준에 맞는 혈통한우만을 선별하여 유통 판매한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한우 수급 안정 지원 “신규입식 자제하세요”

해남군은 한우 가격 하락에 대비한 수급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한우 사육마릿수는 평년 대비 15% 증가한 355만마리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도축마릿수는 평년대비 12.9% 증가한 85만마리로 전년과 같은 수요가 지속되는 경우 공급불량 확대로 도매가격의 점진적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 방역수칙 완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한우 수요가 감소하고, 최근 비육우 배합사료 가격도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으로 상승하는 상황으로 생산비 절감과 경영개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은 한우 신규 입식 자제 및 조기출하를 당부하는 한편 조사료 생산 확대와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개량 촉진 등 장기적인 축산농가 경영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9억4,500만원(자부담 50%)을 투입해 사료운송비와 사료포장재를 지원하고, 조사료 지급 향상을 위한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사료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경영개선 및 한우 개량을 위해 군비 12억5,600만원(자부담 50%)을 투입해 가축시장 출하운송비를 비롯해 가축인공수정료, 인공수정 전산등록비, 분뇨처리장비(스키드트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